

미국인 절반 AI 확산 우려, 전세계 1위

퓨리서치센터 조사, 한국 16%로 가장 낙관적

일상 속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해 흥분보다 걱정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우려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퓨리서치센터는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6개 지역, 25개국의 성인 2만 8,333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국 내 조사는 3월 24-30일(3,605명), 6월 9-15일(5,023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됐다.

■ 미국·이탈리아, AI 걱정 비율 최고



퓨리서치센터가 16일 발표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절반이 'AI에 대해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크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조사대상 25개국 중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은 단 16%, 인도는 19%만이 '걱정이 더 크다'고 응답해, 두 나라는 AI 확산에 가장 낙관적인 국가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 차이가 AI 도입 속도와 유틸리티의 변화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직원들이 기술 변화에 불안을 느낄 경우, 업무 자동화나 생산성 혁신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 **성별·연령·교육 수준 따른 인식 차**
조사 결과, 남성과 고학력자는 AI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긍정적·흥미로운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은 상대적으로 우려와 불안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AI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디지털 친숙도가 기술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 "미국과 중국의 AI 규제 신뢰 못 해"

글로벌 AI 경쟁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좁혀졌음에도, 세계 시민들은 두 나라 모두 AI 규제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48%는 미국 정부의 AI 규제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0%는 중국 정부에 대해 같은 불신을 표했다.

반면, 자국 정부에 대해 55%, 유럽연합(EU)에 대해 53%가 '어느 정도 혹은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 "미국, 불안 속에서도 AI 가속화"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AI의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워싱턴과 실리콘밸리는 오히려 AI 투자를 강화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술 혁신의 방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대중의 불안과 정책적 대응 간의 간극이 앞으로 AI 시대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규모 대규모 인터넷 장애

아마존웹서비스 오류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 일시 마비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장애로 인해 20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를 비롯해 스냅챗, 훌루



등 주요 웹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이번 장애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북버지니아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연결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AWS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네트워크 연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일부 서비스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성명에서 "AWS 장애로 인해 여러 온라인 서비스, 포함해 자사 플랫폼이 일시적인 접속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일부 구 버전의 자산 이체 요청은 여전히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로빈후드 역시 X를 통해 "AWS 관련 문제로 서비스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 중"이라고 발표했다.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거래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장애의 여파가 크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여전히 마비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두 회사 외에도 수천 명의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다운 현상을 신고했다고

다운디렉터는 전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을 계승한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단일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 인터넷'을 지향하지만, 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암호화폐 산업이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의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브 등 대안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아직 상용화나 안정성 면에서 AWS와 같은 중앙 집중형 서비스에 비해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발생한 AWS 장애다. 앞서 4월에도 AWS 오류로 인해 바이낸스와 쿠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시적으로 거래와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흥미롭게도 이번 장애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다. 20일 오전 기준 아마존 주가는 장 초반 대비 1% 상승했으며, 코인베이스는 약 5%, 로빈후드는 6% 이상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의존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지만, 시장은 일시적 기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향후 디지털 금융산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ww.faithandhopemedical.or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6-7)

오랜 의료봉사의 경험으로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의사

신창은 내과

Chris C. Shin, MD

이제 다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하겠습니다.

30년 의학 경험과 지난 10년간 아시아 오지에서의 의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을 선물하는 신창은 내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OPEN 진료 시간
8 AM - 4 PM (월요일 - 금요일)



Chris C. Shin, MD

- 미국내과보드 전문의 (Board Certified)
- 방글라데시 LAMB 미션병원 내과 과장
- 인도 Manali 미션 병원 내과 컨설턴트
- 신창은 내과 원장 (2002-2012)
- UCLA / West LA VA 내과 레지던트
- Rush Medical College, MD, 시카고
- UC Irvine, University of Michigan
- 연세대학교 치의예과 재학 중 미국 유학

진료 예약 **714. 577. 2340**

408 S. Beach Blvd. #204, Anaheim, CA 92804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